

**2018 OECD FCAN 연례회의 및
FCAN-EGEPH 공동회의 참석 및 발표**

2018. 10

**보고자: 김 상 효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2018 OECD-FCAN 연례회의 참석 및 토론
 - 식품소비행태에서 ‘더 건강한 식품환경(Healthier Food Environment)’을 구축할 수 있는 식품표시 등의 활용 가능한 정책 필요성 및 정책 개발 관련 논의
 - OECD 국가들의 관련 주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
 - OECD 국가들의 관련 데이터 보유 현황을 취합하였으며 우리나라 데이터 보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예정
- FCAN과 OECD 공중보건경제학(Economics of Public Health) 분야 전문가와의 공동회의 주제 발표(session 3: How many nudges help create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 건강한 식품선택 이슈에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넛지(nudge)’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
- OECD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의 2019-2020 사업 중 ‘식품시스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의회(with 강민철 1등서기관 and Celine Giner, Jonathan Brooks)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8년 10월 14일 ~ 10월 17일(2박 4일)
- 출장자: 김상호 부연구위원
- 출장지: 프랑스 파리(OECD 본부)

3. 일정 및 수행업무

일자	이동 경로	수행업무 및 방문자/방문기관
10월 14일(일)	인천 → 파리	•출국, 파리 공항 및 숙소 도착
10월 15일(월)	파리 체류	•FCAN 연례회의 참석(10:00~16:00) •FCAN 관련 업무 협의회(with 강민철 1등서기관, Celine Giner, Jonathan Brooks)(16:00~18:00)
10월 16일(화) ~17일(수)	파리 회의참석 후 저녁 9시 파리 → 인천	•FCAN-EGEPH 공동회의 참석(09:30~14:00) •주제 발표(11:45~12:45) •입국, 인천공항 및 나주 도착

■ FCAN 연례회의

- 일시: 2018. 10. 15.(월). 10:00 ~18:00
- 장소: 프랑스 파리, Room CC 2, OECD Conference Centre
- 주제: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식품정보기반 개선(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

■ FCAN-EGEPH(OECD Expert Group on the Economics of Public Health) 공동회의

- 일시: 2018. 10. 16.(화). 10:00 ~18:00
- 장소: 프랑스 파리, Room CC 15, OECD Conference Centre
- 주제: 더 건강한 식품환경을 위하여(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II. 주요 출장결과

1. OECD-EGEPH 공동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

■ 발표자: 김상효 부연구위원

■ 발표 내용

[How may nudges help create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 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Experimental Evidence from Korea]

2018 OECD FCAN-EGEPH Joint Meeting | 2018.10.16.

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Experimental Evidences from Korea

Sang-Hyo Kim* and Yeon-A Ho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18 OECD FCAN 연례회의 참석 및 토론

[Jonathan Brooks]

- OECD TAD는 FCAN 관련하여 'food system' 에 일부 연구역량을 활용하고 있음.
 - 내일 발표 예정으로, food system, global food security, nutrition, sustainable resource use, climate change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오늘 논의할 중요 주제는 공중보건 이슈, 육류/축산 생산/소비 간 trade-off, 즉 관계/갈등/중재에 대한 것임. 이는 건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간의 trade-off에 관한 것임.
- 오늘 논의할 또 다른 주제는 food system 관련 데이터임. 농업 관련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food system 관련한 데이터는 아직 미흡함. 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며, 다양한 식품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은 어떠한지 고민해야 함.

[Celine Giner: Opening Remarks]

- 오늘은 information base에 대해서, 내일은 policy initiation 및 건강한 식품정책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예정임.
 - 1세션은 OECD 국가들의 식품 관련 데이터 및 정보 현황과 관련
 - 각국에서 식품과 관련 어떤 데이터를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우선순위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국제비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파악

[1세션: food data systems across the OECD]

[Celine Giner] “Overview of the food data environment across OECD countries”

- food system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data infrastructure)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에 조사표를 보내어 조사함.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7월~10월 사이에 24개 국가가 응답하였음.
 - 6개 데이터 카테고리: food availability, food intake, food purchase and acquisition, food sales, food composition, other
- 식품정보 기반 마련의 동기는 비만이나 과체중 증가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정보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임.
- 식품정보 기반 마련의 목적은 식품이용가능성의 변화(공급 측면, 식품수급표), 식품섭취 평가(food intake data), 가구의 식품소비 지출 변화(household budget survey data, 가계동향조사 등), 영양구성에 대한 정보(food composition data) 제공 등임.
- 식품정보 기반 마련의 부가적 목적은 1) 식품환경에 대한 이해도 개선(식품소비행태조사 등,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사는가?), 2) 습관에 대한 이해도 개선, 3) 식품체인(food chain)과 소비자 대상 특정 정책의 효과 분석(취약계층 식품지원정책, 캠페인, 표시정책, 식품세금 등) 등임.
 - 이를 위해 식품 판매 데이터, 생산 데이터, 산업별 리뷰, 소비자패널, 시간활용조사, 센서스 데이터, 시장조사 등의 데이터 활용
- 식품정보 기반의 종류는 1) 일반적인 지표를 제공하며, 국제기관에 제공

하기도 하는 공공데이터와, 2) 시장이나 소비자에 대한 민간 데이터 등으로 구분됨.

○ 식품정보 기반의 시점 관련해서는(time dimension), 1) 오래전부터 생산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 2) 사회/건강/기술의 변화/개선 및 정책 필요에 따라 생산이 시작된 최근 데이터 등으로 구분됨.

- 상당수의 데이터 수집은 예산 상황에 의존적인데, 특히 **food intake/acquisition** 조사는 2년 혹은 10년에 한번 수집되는 경향

○ 정보 수집의 방법은 1) 조사(survey)인데, 대표표본을 설계, 횡단면이 대부분이며,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수행되고, 최선의 수집 방법(면접, 전화, 웹 등)에 대한 동의는 없다는 상황임. 2) 판매현황 수집(식품점/음식점에서 수집, 시장분석 목적, 빅데이터)과, 3) 식품구성조사(실험실 검사 기반, 영양정보는 컴퓨터 기반으로, 시장분석회사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식품정보 기반 마련에는 4가지 난관이 있음.

- 난관 #1: 연결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임. 주요국은 식품류에 대한 분류와 **aggregation**의 수준이 다르므로 매칭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식품소비데이터와 건강데이터 연결하는 것도 어려움. 마지막으로,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food composition**과 **food intake** 데이터는 연결강도 썬 편임. 연결 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난관 #2: 개인 및 가구 단위 데이터를 개선하는 것임. 1) 습득(acquisition) 자료와 섭취(intake)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구로부터 가구 안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추려내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 난관 #3: 식품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 새 제품에 대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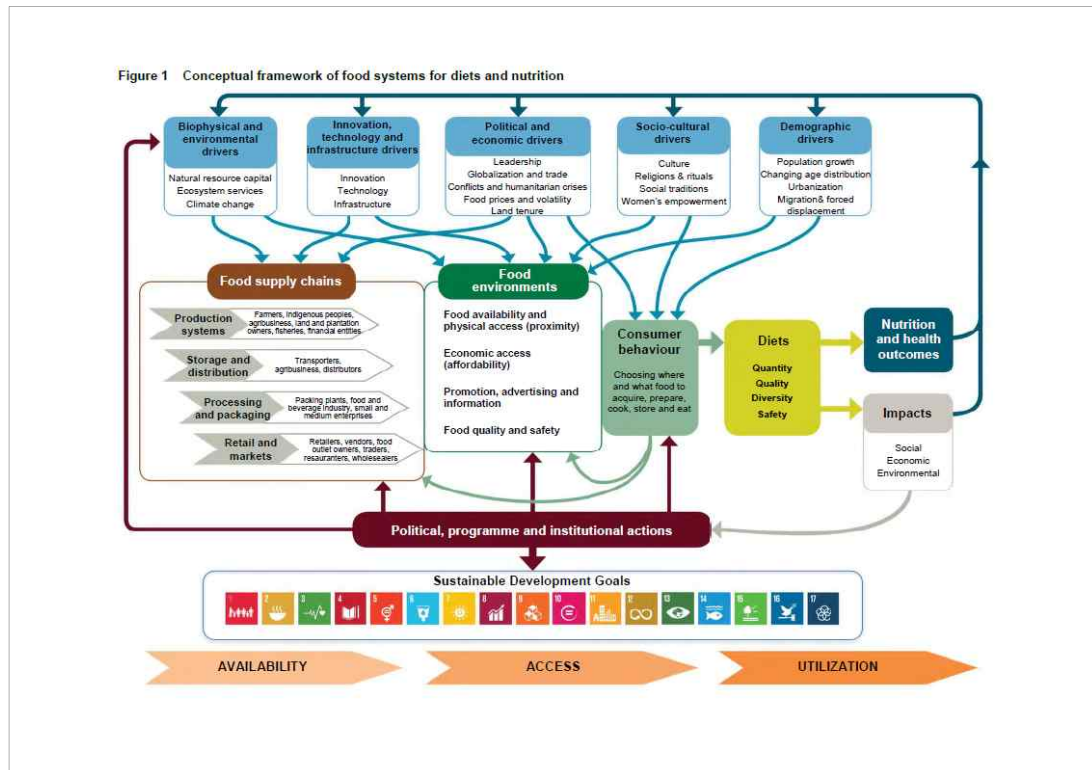
양정보 개선, 외식에 대한 정보, 식품첨가물, 원산지,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식품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임.

- 난관 #4: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선하는 것임.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민-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Karin Zimmermann, Netherlands] “Building a research infrastructure for food, nutrition, and health research in Europe”

- 연구인프라(research infrastructure)는 연구를 통해 과학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함. 연구-교육-혁신이 연구인프라의 삼각형임.
- 식습관 행태는 건강, 정신복지, 사회복지,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줌.
 - 식품시스템과학(food system science): 복지, 영양/건강, 자원 활용의 효율성, 식품안정성(food security)이 상호 관련이 있으며, 상위 레벨에서 생산성, 경쟁력 및 이윤, 공중보건/평등/포용, 복지, 영양/건강 등의 개념이 등장
 - “FAO-HLPE(High Level Panel of Experts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17”의 “conceptual framework of food system for diets and nutrition”를 참고(아래 그림)

< FAO-HLPE의 식생활/영양을 위한 식품시스템의 개념적 틀 >



자료: <http://www.fao.org/3/a-i7846e.pdf>

- 개인, 공공, 전 지구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중요함.
- 1) 디지털화: 소비자 모니터링을 위해
- 2) 개인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의 피드백 필요
- 3) 시민 참여형 과학(citizen science): 시민들이 연구 자체에 참여하도록 유도
- 4)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사전적인 결정 상황에서 휴리스틱(heuristic) 상황으로)
- 5) 과학: 뇌신경과, 행동경제학 등이 multidisciplinary research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6) 정책일관성: 식품정책은 건강/영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통합적 정책 관리가 필요, R&D 정책에서 데이터 공개 및 access 중요, 중소기업 등에 혁신 공개 필요

- 와게닝겐의 식품영양건강(Food, Nutrition and Health, FNH)-연구인프라 건축학: 실험실, 시설, 식품데이터, 플랫폼에서 DB와 실험실을 구성하고, FNH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식품, 영양, 건강 관련 종합적 플랫폼을 구성함.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온톨로지(ontology)와 표준(standards), semantic modelling, harmonization, meta data, thesaurus, protocols, FAIR, data collection, software and tool development 등임.
- 효과적인 연구인프라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Hub and Spoke 모형)이 필요함. 거버넌스는 중심 허브, 윤리위원회, 국가들 노드, 협회, 산업계(자문), 전문가(연구자), 각종 위원회들로 구성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국가 간 협업(특히 유럽 국가들)이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중요함.

[참가자 의견]

- ICT로부터 반복적이고, 쉽고, 유연한 방식으로 새로운 영양정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영양섭취조사에 유용할 것임.
- 다른 나라, 다른 시스템, 다른 연구인프라와 다른 기준, 다른 standard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함.
- 연구인프라에 규제 및 식품표시가 빠져있음. 고려해야 함.
 - 프랑스 영양점수시스템(nutri-score system) 등의 표시에서는 영양정보, 안전정보, 품질/윤리 등의 속성에 대해서 다양한 표시를 하고 있음. 표시제도보다 상위의 규제도 있는데, 첨가당, 락토오스에 대해 매우 민감함. 식품안전 관련한 연구인프라와 건강/보건 관련 연구인프라는 상

당히 다른 이야기이며, 현재의 연구인프라는 식품안전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음.

[Kieron Stanley, UK, Royaume-Uni] “Gathering information on food consumed away from home”

- 식품환경 혹은 판매환경 중에서 표시정보 제공이 중요함. 표시가 명확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패키징과 표시는 가정식 섹터와 외식 섹터에서 다를 수 있음. 외식 섹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의 관점에서 소금/설탕 섭취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분명한 정책개입의 기회이기 때문임. 메뉴 및 제품에 개선(reformulation)을 유도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표시를 개선하면 제품의 성분개선(foods available의 reformulation을 통해)을 유도할 수 있음. 표시를 바꾸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생산자의 제품 생산 및 식품개선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임.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가 필요함.
- 외식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하고, 인구, 지리정보 수집도 어려우며,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식품군 내에서 정보를 해석하는 것 또한 어렵고(revealed information), 외식 구입/소비 행태는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보고된 자료와 관찰자료(reported vs. observed)가 다를 수도 있음. 식품 업소는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의 결과로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Food statistics pocketbook summary가 좋은 데이터 소스
- data category 1: (household) food availability, resilience: 식품안정성

(food security) 평가 rksmd

- data category 2: 식품섭취 데이터(UK national diet and nutrition survey) - 스스로 보고하는 데이터는 제한점이 분명히 상존
- data category 3: food purchase and acquisition 영역의 데이터는 kantar world panel, MCA eating out, family food survey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스스로 보고하는 데이터로 한계 존재
- data category 4: food sales statistical pocketbook이 참고할 데이터인데 특히 외식 분야에서 이 카테고리 데이터는 특별히 수집이 어려움. Euromonitor, Mintel, Kantar, IGD 등의 데이터 소스가 있음.
- 기타 데이터로는 “Food Composition and standards”, “Food and You(FSA)” 등이 있는데, FSA는 food safety issue에 대해 다루고 있음.

[참가자 질의/의견]

- 영국의 경우, 현재까지의 데이터의 구성, 형성 역사,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면 보다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각국의 데이터가 다 다르고, 개인이 쇼핑, 인지, 활용, 관여도가 다 다름. 식품표시 관련 관여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 활용하는 방식이 다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함.
-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식품을 섭취하는 행태가 많이 다름. 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에 대한 영양 정보 제공이나 식품정책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 다만, 외식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 칼로리 등의 정보를 (오바마 케어 이후)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식약처 규정에 의해 표시해야만

함.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이유임. 식품개선이 건강한 식품선택의 주요 기여자가 될 수 있음.

-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연결하는 기법이 있으므로 활용이 필요함.
- FAFH(foods away from home)의 경우 개인 단위이고 FAH(foods at home)은 가구 단위로 봐야 함. FAFH는 가구 조사를 통해 가구 전체도 보지만 개인 단위의 FAFH를 보기 위해서 개인 단위로도 조사를 하기도 함. 건강한 식품습관을 만들고 **physical activity**를 늘리는 것이 관심임. 만약 건강한 식품이 가장 비싸다면, 어떻게 그것이 지속가능하겠는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해야 함. **Celine**이 요약한 데이터 차원의 난관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1) **food environment** 중요
 - 2) 지출액 데이터 중요한데, 소금을 감축해야 한다면 어떤 식품에서 지출액을 줄였는지 볼 수 있어야 함. 지출액 데이터가 아닌 행태 데이터로 보는 것은 부족
 - 3) **physical activity**, 스트레스 레벨도 중요
 - 4)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음. 포르투갈은 **nutrition composition** 등에 대한 데이터 있는데, 구축이 비쌈.
- **Turkey**: 식품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식품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빠져 있음. 식품 수요나 가격 결정 메카니즘에 대한 내용 또한 없음. 수요-공급-가격에 대한 이야기임.
 - 수요에 관한 이야기는 탄력성을 추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총수요량은 식품수급표에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함.
 - **food availability data**(미국)는 **supply table**, **stock**, **loss** 등을 제공하므로 **demand** 관련 숫자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 데이터는

생산으로부터 재고를 더하고 loss를 빼는 방식이므로 진정한 총수요를 도출한다고 볼 수 없음. 총수요 도출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가격 결정 메카니즘도 마찬가지임.

- 음식점 표시 중요함. 미국 food acquisition data에서 가구가 응답하는 정보는 외식으로 변경해서 영양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미국 NHANES 데이터는 매우 좋은 데이터이지만, food acquisition data에서는 그 부분이 약한 특징이 있음.

[2세션: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digital technologies]

[Jay Variyam, 미국]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collect food acquisition data”

- 2009년에 household food acquisition and purchase survey data 수집을 시작함.
 - 2012-2013 FoodAPS(paper-pencil 방식) 활용
 - 2015 ADCM(web-based online data collection) 방식 활용
 - 202x년에는 mobile app을 활용할 것으로 추진 중(mobile app with interactive data collection)
- 식품의 구입/섭취 소스는 1) FAH(슈퍼마켓), 2) FAFH(식당, 학교, 병원 등), 3) food obtained for free(friends, family, gardening, hunting, etc) 등으로 구성됨.
- FoodAPS 데이터는 영양, 식품아이템 묘사데이터, 행정데이터, 식료품점 위치 및 특성(판매가격 중요), 식품 환경 관련해서 연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 FoodAPS 데이터 평가는 계약자로부터 평가보고서, 3자 평가(설계, 응답 부담, 응답 유인, 응답률, 표본설계 등)로 구성됨.
- FoodAPS로부터의 교훈은 1) FAH: Foodbooks에 불일치적인 데이터, 슈퍼마켓 주소 missing, 영수증 없이 구입하는 사례, 작동하지 않는 바코드 있다는 점, 2) FAFH: 회상에 의존, 다양한 장소 변동성, 다양한 식품 종류 변동성, 영수증 불충분 등의 부분임.
- ADCM(alternative data collection method):은 응답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함(UPC scanner, 스마트폰, 인터넷, 노트북 제공, online log를 통해서 기록되는 items, 영수증 사진 업로드, FAH와 FAFH를 시스템이 비교).
- 자료 완성도를 평균 events의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가?
 - data collection challenges: events and items 중에 응답 피로에 의해 보고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하므로, 회상법 사용하는 것의 불확실성이 높음. 25%의 응답자는 적어도 1개의 item은 잊어버림을 알고 있음. 따라서 자료/자료수집의 완성도 평가의 하나의 척도는 events로 볼 수 있음.
- 향후 과제: 모바일 app 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임. 영수증으로부터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부담을 줄여주며 완성적인 리포트를 제공할 것임. 정확한 실제 구매활동을 측정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손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오류도 감소 가능함.
- 만약 영수증이 UPC를 가지고 있으면 영수증 변환-IRI와 매칭하는 것은 직관적임. 만약 UPC가 없으면 이 두 과정은 text matching을 필요로

함. 다음 3-4단계는 표준화된 이름, 수량, 무게를 붙이는 것임.

- 이러한 영수증 자동추출의 문제점: 영수증 구성/형태의 다양성이 비구조화된 영수증을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는 데 장애물
- 각기 다른 판매처가 각기 다른 영수증 형태를 보유

[참가자 질의/응답]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오버샘플링은 지속할 예정인가? - 지속할 예정인데, 저소득 가구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해서 오버샘플 필수
- 구입 뿐 아니라 실제 사용 또한 추적이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식품 손실이나 낭비 같은 부분이 추적 가능한가? - 식품 손실/낭비는 추적 가능하지 않음.
- 영수증에 영수증 바코드가 있음. deep learning을 응용하면 실제로 영수증 몇 개만 수집해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임. 영수증 바코드만 있으면 되는데, private public partnership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식품소비데이터이지 영양섭취, 영양정보와 관련한 정보는 될 수 없음.
 - 이미 NHANES에서 잘 하고 있으므로, acquisition에 집중하는 것

[Olivier Allais, France] “Software developed for the nutriscore experiment”

- 2016년에 nutri-score labeling 시스템을 개발함. 1,300개 제품에 대해서 슈퍼마켓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험 중에 있음.

- 목적: 소비자의 실제 식품 구입에 있어서 영양구성의 차이/변화를 살펴보는 것인데, 2개의 가상적인 라벨링(SENS, Nutri-score labeling) 효과를 실험을 통해 비교하고자 했음.
- 60개 슈퍼마켓 선정, 10개 슈퍼는 GFL 시스템에 의함. 20개의 컨트롤 슈퍼마켓을 선정함. 저소득 지역에서 40%의 슈퍼마켓을 선정함. 4개의 식품카테고리(1298개 아이템) - fresh prepared foods, pastries, breads, canned prepared meals -에 스티커를 부착함. 60명의 표시작업반, 24명의 영양학자, 6명의 관리자가 투입되어 10주 동안 190만개의 제품에 라벨을 붙임.

[질의/응답]

- 라벨링 크기는 통제했는지?
- 스티커/라벨링의 위치는 통제했는지?
- 스티커/라벨링에 의해 가려진 정보는 어떻게 처리?
- 산업체, 유통업체 불만 없었는지? 협조는 되었는지?
- nutri-score 뒤에 있는 영양프로파일은 무엇인지?
- 이러한 영양표시를 사용할 유인이 있는가? - 사기업이 이 실험을 지원함. 민간에서도 국민건강에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관심이 있음. 식품표시정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식품 자체의 품질/영양성분을 개선(재조합, reformulation)한다는 점임.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안전한 식품선택의 집합에 직면하게 하므로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됨. 이는 식품표시정책의 중요한 기능임.

[3세션: integ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Carole Nero] “International consumers panels”

- 유로패널(Europanel)은 60개 국가에 소비자패널을 qhdbgkrh 있음. 한 국가의 가구와 개인을 대표하는 표본 각각을 보유하고 있음. 판매하는 데이터임.
 - 나이, 인구정보, 지역, 뭘 얼마나 많이 자주,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 식품 외에 무엇을 구입하고, 구입가격은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구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적 관찰함.
- 가정 내에서 스캐닝, 가계부 기입, 대면면접 조사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 매월 말에 수집을 하고 있음. 그리고 인구정보를 근거로 가중작업을 수행함. 그래서 한 나라의 인구를 대표하도록 추진되고 있음.
- “Out of home”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구입했는데 집으로 안 가지고 가고 집 밖에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구 내 소비로 안 잡힘(과자 39.7%, 음료 16.5%, 나머지). 이 경우 “Out of Home Panel”이 필요함. 100% app을 통해 수집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이 자료는 9개 국가에 대해서만 수집되고 있음.
- 소비자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함. 구입 제품에 대한 정보(생산자, 브

랜드, 유기농 특성, 포장 사이즈, SKU 레벨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지리적 정보, 인구사회 정보, 경제적 정보, 체질량지수 등), 100,000 개의 식품 음료류에 8대 영양정보(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설탕, 소금, 트랜스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유로모니터에서 제공하고 있음.

[참가자 질문]

- 얼마나 긴 패널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BMI에 대한 패널데이터의 길이는? - 국가별로 다르고 10년 내외
- 식품낭비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는가? - 가지고 있지 않음. 조사할 수는 있음. 하지만 측정할 수는 없음. 즉, declared response 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편임.
- 건강한 식품선택이나 식품환경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에서 민간수집모형과 공공수집모형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음.
- 데이터 독점/과점의 이슈가 있음. 가격이 너무 비쌌.
- home panel data, POS data에 대해서 USDA ERS 는 품질평가를 해보았는데, coverage issue가 있었음.

[Dermot Doherty, Ireland] “evidence based analysis on the beverage market”

- FDI(food drink ireland)는 매우 중요한 식음료산업의 중심체임.
 - 10년간 소금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Special Action Group on

Obesity(SAGO)에 관여

- FDI reformulation project(nutrients sold, impact on dietary intakes of 5 nutrients)를 운영하고 있음.
- 수집하는 데이터는 단위당 크기, 판매 데이터, 전체지방량, 포화지방량, 에너지, 소금, 설탕 섭취량 등을 2005~2012 동안 모아왔음. 데이터 출처는 칸타월드(kantar world)로부터 브랜드별, 식품 카테고리별 판매데이터임.
- IUNA survey 데이터를 사용해서 개인 데이터에서 개인 식품섭취를 추린 후 food codes를 식별하여 각각에서 소비하게 된 에너지, 비타민, 지방, 단백질, 칼슘 등의 양을 추려낸다.
- part 1: level of nutrients sold: nutrient concentration과 sales 데이터를 합쳐서 levels sold를 계산, 이를 2005년, 2012년 비교하여 reformulation 전과 후를 비교함(fat saturated fat, energy, sodium, sugar).
- part 2: assessing the impact on the Irish population: 시나리오 1은 모든 회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reformulate 했다고 가정(optimistic), 시나리오 2는 FDI 14개 멤버만 참여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임.
- part 3: 결과는 시나리오 2의 경우, 지방은 2.95% 감소, 포화지방은 5.39% 감소, 에너지는 1.32%, 설탕은 2.06%, 소금은 8.31% 감소했다는 것임.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7.09, 18.22, 3.74, 7.70, 45.10%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per day 개념임).
-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식품류는 다른 reformulation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니즈가 있음.

- comment 1: 기업이 reformulate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on demand side, and on supply side).
 - reformulatoin은 공급 측면에서의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협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음. 협회 회원사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있음.

[마무리]

- 식품환경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 국가별 데이터 간 격차는 무엇이고 국제비교를 위해 극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함.
- digital technology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FAFH(외식) 데이터 및 표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언급되었음.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소비자 선택 유도 관련 정책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데이터 생산/공유가 필요함. 데이터 공유 방식도 중요함. OECD 홈페이지에서 행정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임.
- 추가적인 의견은 이메일을 통해 주기 바람.